

국 / 제 / 뉴 / 스

벤큐, 중국 베이징 R&D 및 디자인센터 폐쇄

대만의 휴대폰 제조업체인 벤큐가 중국 베이징 R&D 및 디자인센터를 폐쇄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18일 밝혔다.

벤큐의 대변인인 에릭 류(Eric Yu)는 "이번 결정은 독일 벤큐 모바일 매각에 뒤 이은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며 "베이징의 R&D 센터 폐쇄를 통해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베이징 R&D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400명 이상의 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수저우의 R&D센터나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며 "나머지 직원들은 정리하고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올해에도 휴대폰은 벤큐의 핵심 사업으로 존재할 것"이라며 "향후, 벤큐는 저가 휴대폰 개발에서 고가의 부가가치를 지닌 휴대폰을 개발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일본 휴대폰 판매, 전년 동기대비 11.8% 증가

지난해 10월 일본 내 휴대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8% 증가한 368만 대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일본 휴대폰 시장에서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0월 NTT 도코모를 포함해 KDDI와 소프트뱅크 등 일본 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일제히 번호이동제도를 실시하며 신규 휴대폰 수요를 유발시켰다. 이와 관련, 간이형 휴대폰(PHS)를 제외한 판매량 증가율은 13.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프린트, 와이맥스 사업 파트너로 노키아 추가 선정 전망

미국 이동통신업계 3위 업체인 스프린트 넥스텔은 와이맥스(WiMax) 네트워크 구축 파트너로 노키아를 추가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스프린트 넥스텔은 자사의 와이맥스 네트워크 구축 작업에 노키아가 기존에 선정된 모토로라 및 삼성전자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노키아의 추가 선정으로 스프린트는 신규 휴대폰 모델에 대한 효율적 비용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휴대폰 시장에서 노키아의 휴대폰 사업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덧붙였다.

소니에릭슨, 2007년 DVB-H폰 출시

소니에릭슨이 오는 2007년 DVB-H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대만의 IT 관련 온라인 매체인 디지털타임스(DigiTimes)가 지난달 29일 밝혔다.

소니에릭슨은 12월 초 일본 이동통신사인 KDDI와 함께 CDMA 2000 1x EV-DO를 지원하는 브라비아(Bravia) 브랜드의 TV폰인 W44S 모델을 출시한 바 있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 소니에릭슨이 내년에 출시할 DVB-H폰은 앞서 출시된 W44S를 기반으로 제작될 것으로 전해졌다.

올 세계 IT업계 화두는 '온라인 커뮤니티'

올 세계 IT 업계의 화두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메라폰, 웹 기반 서비스가 될 전망이다. 영국 BBC방송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온라인 이용자들의 힘이 기업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1일 보도했다.

미국판 싸이월드인 마이스페이스와 페이스북,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 등은 이미 구글, 야후 등 전통적인 강자를 제치고 인기 웹사이트로 부상했다. 이들 커뮤니티 사이트는 이른바 '구전 마케팅'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기업은 사람들이 기업의 상품 정보보다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사용 후기를 더 신뢰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IT 컨설팅업체 콘스토 파트너스의 캐시 존슨은 "모든 기업들이 '평판 관리'에 신경쓰고 있는 이유"라며 "기업들은 인터넷 커뮤니티가 생산한 정보를 어떻게 발굴하고 재구성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